

기능을 고려한 상악 전치부 수복 증례

오우식 *, 배아란, 정승미, 김형섭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대 치과학교실)

상악 전치부 보철 수복시 대부분 심미적인 측면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의 비중이 낮게 다루어질 수 있다. 전치부 교합 기능을 정확히 부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과두의 비정상적인 기능적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병적인 상태가 잠재될 수 있다.

전치부 기능에 중요시 되는 부분은 상악 전치부 설면의 풍용도와 절단면의 길이이다. 이를 적절히 설정해 주어야 전치부의 생체역학적 교합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전치부를 수복할 때 교합 기능을 검사하고 (1)적절한 전방 유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보철물이나 자연치의 설면과 같이 유지하여야 하고, (2)적절한 전방유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내 검사, 교합기에 장착한 모델 검사에서 환자의 전방 유도를 확인하고 수정할 것인지 또는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적절한 전방유도를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 맞는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여 환자에게 장착한다. 환자에 장착한 임시 보철물이 적절할 경우 이를 다시 교합기로 옮기고 customized anterior guide table을 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종 보철물도 같은 전방 유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상악 #12,11,21,22 보철물 도재 파절로 본원에 내원한 45세 남환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금속도재 보철물을 제작하여 주었다. 수복 후 환자는 전치로 음식을 절단 할 수 없고, 악관절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하며, 보철물이 비심미적이라는 것을 호소 하였다. 원인은 전치 유도 변화였고 이를 위와 같은 고려사항을 통해 재제작 후 개선해 주었다.

전치부 수복시 기능 교합의 유지 또는 회복은 심미적인 면 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합을 이루는 요소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이에 따라 적절한 심미성도 개선시킬 수 있다.